

4기 민선자치 1년

2 재정 자립, 여전히 요원

수출주문 밀려 드는데...

주름살만 는 살림살이 '국비 연명'

광주·전남 자립도 제자리 '빈곤 악순환' 서남권 개발·문화수도 등 활성화 시급

◇요원한 재정독립=이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재정독립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교부세 지원에 의존한 살림을 꾸려간다. 광주·전남은 광역, 기초 예외없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그만큼 지자체 살림살이가 웅장할 수밖에 없다. 일부 시·군은 교부세가 없다면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선 4기 1년동안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형편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지자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척도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광주지역 지자체의 재정형편은 대도시권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광주시의 2007년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52.6%로 7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대도시 전

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62.2%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살림살이는 궁색하기만 하다. 광역시중에서는 광주 다음으로 대구의 재정자립도(61.9%)가 낮다. 광주지역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다.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에 달하지만 광주 동구는 17.4%, 서구 22.7%, 남구 18.1%, 북구 17.3%, 광산구 21.0% 등 20% 내외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 지자체 재정사정도 바닥권이다. 2007년 본예산 대비 전남도와 시·군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 1년 전 17.6%에서 겨우 2.5%p 늘었을 뿐이다. 전남 산업생산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역 내 산업체의 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탓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광주시	52.6
전남도	20.1
광주 동구	17.4
광주 서구	22.7
광주 남구	18.1
광주 북구	17.3
광주 광산구	21.0
목포	28.2
여수	30.0
나주	11.1
고흥	8.5
강진	9.3
신안	8.6

로 돌아왔다. 군 단위에서는 구례·고흥·보성·영암·완도 등 5곳이 1년 전보다 조금씩 낮아졌다. 특히 전남 대부분 기초단체의 산업구조가 농수산업 중심이어서 단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대안은 자립기반 강화=통계청의 2006년 말 시도별 산업생산지수(단기적인 생산활동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광업·제조업·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생산을 조사해 작성한 통계, 2000년 기준 산출)는 전남의 열악한 산업활동을 대변한다. 전남의 2006년 말 산업생산지수는

127.1로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2위였다. 같은 해 6월 125.3에서 겨우 1.8 증가해 중순순위로 11위에 머물렀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174.4로 4위였고, 증감순위는 3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전자와 자동차 등이 산업 근간을 이뤄 단기간 생산성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전략산업인 광산업이 본 계도에 올라 이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전남이다. 농수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빈곤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전략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지역생산력을 높여 자립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이나 조선산업, 서남권발전프로젝트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립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야차 끝내 파업

이틀 부분파업 207억 손실 파업 계속면 2만대 차질

기야차 노조가 27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28, 29일 10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해 기야차는 물론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을 기야차 삼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한미 FTA 반대파업'을 주도하면서 '정치파업'에 대한 논란, 이에 대한 회사측의 피해보상 등이 향후 제조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파업결의로 가동 중단=27일 주·야간 2시간에 걸친 기야차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는 60~70%를 넘는 파업 찬성투표는 달리 57.80%에 불과해 17년 연속파업과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정협의회와 생산관리자 협의회 2천900여명이 '정치파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향후 기야차 노조의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정협의회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정치파업'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안정이 아닌 '정치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수출주문 밀려 있는데=기야차 광주공장 노조가 28일 4시간, 29일 6시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생산차질대수는 1천336대, 손실액은 2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야차 전체는 5천400대 720억 원의 수출 주문이 있다.

특히 기야차 광주공장의 경우 올해 3만 5천대를 생산, 이중 65%인 2만2천대를 수출할 예정이나 이번 파업으로 적기지면 등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스포티지와 뉴 카렌스는 6월 부분파업에 이어 7월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월 평균 2만대에 달하는 수출물량 생산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야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지난해 스포티지 수출 물량은 2005년에 비해 17% 증가했다"며 "파업으로 인해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경우 원활하락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보고 있는 기야차의 수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적법성 논란=이번 파업을 두고 사측이 '불법파업'을 제기, 향후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지난 26일 노조측에 '근무시간내 쟁의 찬반투표 진행 등 불법파업 철회요청'을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보내 이번 투표를 비롯해 향후 불법파업을 자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자체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중앙노동위의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히 쟁의행위 신청은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자위적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향후 기야차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이 27일 국회를 방문,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F1(포물러 윈)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의장, 강우석 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원내대표, 김창남 부의장, 홍이식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전남도의회 제공>

F1특별법 직권상정에 '실날 희망'

법안심사소위 심의 또 못해...도의회 의장단 등 한나라 방문 협조 요청

'F1특별법'(포물러 윈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벼랑끝에 몰렸다.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F1 특별법을 다룰 소위는 또 다시 공전했다. 따라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J프로젝트)을 이끌어갈 F1대회는 국회 심의과정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F1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9일 국회 문공위에서 정당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초고속 심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공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대한 정당간 합의점 도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내달 3일 폐회되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F1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F1대회를 원만하게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던 전남도는 오는 29일 조배숙 위원장이 직권으로 문공위 전체회의에 상정 후 통과시키는 '초강수'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F1 특별법이 무산된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처리를 남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당간 합의가 7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의장단과 전남도 관계자들은 27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당론은 F1 특별법에 찬성이지만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재삼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 26일 "결코 당파적인 문제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F1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한나라당도 이 법의 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7월 착공이 불가피한 F1 경주장 건설을 위해 정부가 영암군 난전·삼포리 일대 경주장부지인 간척지 우선사용 승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1특별법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더라도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7월 중 경주장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北 울들어 세번째 미사일 발사

북한이 27일 오전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 가량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함경남도 함흥 인근 해안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

일 한발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아직 미사일 종류는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단천

시 미사일 기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울 들어 세 번째다.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본격적인 하계훈련에 대비한 전투준비관정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도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P는 Windows Vista® Home Premium을 권장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HP 파빌리온

HP 파빌리온은 왜 엔터테인먼트에 강할까요? 그건 바로 HP가 연구와 심혈을 기울여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PC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화, 음악, 게임, 그리고 교육까지. 이제 HP 파빌리온과 함께 더 큰 즐거움을 누리세요.

HP 파빌리온 dv6507 노트북 PC

- 인텔® 센트럴® 듀오 프로세서 기어
- 인텔® 코어™ 2 듀오 프로세서 T7300* (4MB L2 Cache, 2GHz, 800MHz FSB)
- 장동 Windows Vista® Home Premium
- 2GB DDR2 메모리 / 160GB SATA HDD
- DVD±RW Super Multi LS • 15.4 WXGA BV

HP 파빌리온 v7046k 데스크탑 PC

- 인텔® Viiv™ 프로세서 기어
- 인텔® 코어™ 2 듀오 프로세서 E4300* (2MB L2 Cache, 1.80GHz, 667MHz FSB)
- 장동 Windows Vista® Home Premium
- 1GB DDR2 메모리 • 250GB SATA-3G (7200rpm)
- DVD±RW Combo • 22" LCD WXGA

x2 파빌리온 대전지 6월 15일 ~ 7월 31일

더욱 양생된 성능으로 더 넓은 엔터테인먼트 세상과 만나보세요.

- HP 파빌리온 데스크탑 PC를 구매하시면, 메모리를 2배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매달 모델 구매고객 중 약 5%에 한하여 Microsoft® Office Standard 2007 추가증정)
- HP 파빌리온 노트북 PC를 구매하시면, HP xb3000 엑스펜션메이커와 노트북용 티거스 백팩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페이지(www.hp.co.kr/hppromotion) 참조

가까운 Digital HP 매장을 찾아주세요 (1588-8800)

협력업체 • 금오디지털(공주) 062) 350-8833 • 드림컴퓨터(대전) 061) 794-1190 • 디지털세상(대전) 061) 277-1119 • 디지털북(대구) 062) 676-7779 • 미니정보(신기) 062) 953-5044 • 엘리트컴퓨터(공주) 062) 350-8752
 (주)에스시스템(대전) 062) 265-1115 • 진도컴퓨터(대전) 061) 544-8255 • 천운정보(대전) 061) 375-8572 • 컴퓨터(대전) 062) 973-3399 • 한스타드시스템(대전) 062) 942-8572 • 인텔시스템(대전) 062) 364-0011 • 인텔유통(대전) 061) 382-4589 • 유원디지털(대전) 061) 555-5875 • HP PLAZA(대전) 061) 284-2456 • Mplus 정보방송(대전) 061) 741-1107 • TGN주정(대전) 061) 333-1140
 Celeron, Celeron Inside, Pentium, Pentium Inside, Core Inside, Intel Logo, Intel Core, Intel Inside, Intel Inside Logo, Intel Viiv, Intel vPro, Itanium, Itanium Inside, Pentium, Pentium Inside, Xeon, Xeon Inside is a trademark of Intel Corporation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인텔 프로세서의 명칭은 상품의 식별이 아닙니다. 프로세서 번호는 서로 다른 프로세서 제품군의 비교속도가 아닌, 각 프로세서 제품군 내의 성능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품 내용은 www.intel.com/products/processor_number를 참조하십시오. Certain Windows Vista product features require advanced or additional hardware. Windows Vista Upgrade Advisor can help you determine which features of Windows Vista will run on your computer. To download the tool, visit www.windowsvista.com/upgradeadvisor. For Windows Vista system requirements, visit www.windowsvista.com/systemrequirements http://www.windowsvista.com/systemrequirements. Microsoft and Windows are U.S. registered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Windows Vista is either a registered trademark or trademark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2007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mpany, L.P.